

1960년대 록 스타 패션의 도상학적 해석

이 정 원* · 금 기 숙**

홍익대학교 패션디자인 박사과정* ·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 패션디자인과 교수**

Icon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Fashion of Rock Stars in the 1960's

Jung-Won Lee* · Key-Sook Geum**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 &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투고일: 2008. 3. 11, 심사(수정)일: 2008. 6. 18, 게재확정일: 2008. 7. 18)

ABSTRACT

Considering that star reflects the image of current society, analyzing fashion of celebrity is to read ideal type and demands of beauty of the era. Especially the rock music-represents youth culture that last on present day-born in 1960's, and it is considered to a significant decade in pop music history. Thus this research will analysis rock star's fashions in iconological view of E. Panofsky. The aim of this document is Clarifying how the fashion of pop stars appeared and what formed its worth.

As a result of analyzing fashions of rock star in 1960's, it is available to find these sameness and difference.

The Mods borrowed images of the past, and introduce the elite modernism and shows very urban style. The Folkly and the Psychedelic showed post-structuralism propensity against industrial society, in the case of the Folkly it induced styles that symbolize labor class to realize social worth. And as an aftereffect of war and repulsion of commercial worth, they embody nature-returning peasant look so that it shows pastoral mood in total. The Psychedelic express somewhat struggling escapism and it generated illusionary images with quests to superego and glorification to psychedelic status. The Folkly and the Psychedelic are same in the side of introducing existentialism, this occurred by using ethnic factor. But the Folkly showed plain outlook by pop propensity, on the other hand, the Psychedelic showed magnificent outlook such as optical art, pop art, and futurism ought to express merrymaking culture. And common feature of these is introduction of unisex mod which is came after the change of gender role.

Thus each star or group has professed special ideology into their culture and it is reflected to acts which is including music and dress style. This affair is analyzed like these two things. The mass of people schemes their identity with inducing special ideology to their culture at the first. And the purpose to archive cultural hegemony in inter-social class at the next.

Key words: star(스타), rock star(록스타), mass culture(대중문화), 1960's(1960년대), ikonographie(도상학), iconology(도상해석학)

I. 서론

복식은 그 탄생과 더불어 그의 기능적인 면이나 심미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호화된 내면구조에 의한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식에서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연출이 되며, 그것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물음에서 출발하여 복식의 형태를 단지 우연작용의 산물로 보기보다는 일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교하고 미묘한 감정의 표현이나 고도의 정신작용의 표면화라는 필연적 산물로서 주목하고자 한다.

도상(圖像 icon)의 개념이 미술작품에서 일정한 종교적·신화적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고, 현대 미술사에서도 시각예술작품이 갖는 주제나 상징이라는 의미내용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볼 때, 복식은 인간의 내적 의지를 반영한다는 도상성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복식에 대한 사적 분석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도상적 분석의 방법론을 취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도상해석학은 종래의 도상학에 외연적 해석을 도입하여 도상의 근저에 상징성(象徵性)이나 우의성(寓意性)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어떤 본질을 확인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복식의 의미 분석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미술은 물론이고 복식 역시 전통적 의미의 고정화된 도상이나 관습이 해체되고 작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 강조됨에 따라 개인의 의상을 도상학적으로 분석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복식의 경우, 특히 개인이나 매우 소수의 인원에게 입혀졌을 때 그것에 특수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설부론 도상학적 분석은 그 목적에 비해 결과가 미비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훌륭한 내용 분석일 수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개인적인 감상차원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중스타가 사회구조 속에서 생산되며, 또 스타 자신이 대중에게 주는 영향력으로 인해 문

화적, 사회적 텍스트로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대중스타의 패션은 개인의 패션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롤랑 바르뜨(Roland Barthes) 역시 쏜쉬르(F. Saussure)의 언어이론과 레비스트라우스의 인류학을 섞어서 대중문화를 분석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에서도 이러한 기호학적 관점을 수용하여 방법론을 완성하였는데 이것은 문화를 도상해석학의 틀로 분석하는 것, 즉 본 논문이 찾고자 하는 '대중스타의 패션에 표현된 근본적인 의미의 탐구'라는 측면에 있어서 도상해석학이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입장에서, 대중스타는 현대사회와 동시대 대중의 본질적 성향의 징후로, 스타 자신이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행위와 복식을 통해 그들 문화의 상징적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적극적인 해석행위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으로부터 락문화를 태동시킨 비틀즈(Beatles), 포크락을 선동한 밥 딜런(Bob Dylan)과 존 바에즈(Joan baez), 사이키델릭 락을 선도한 제니스 조플린(Janis Joplin)과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 등 대중적 인기를 누렸던 1960년대 록스타를 대상으로 그들의 패션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사물의 이면의 본질적 의미까지 해석하고자 했던 파노프스키(E. Panofsky, 1892-1976)의 도상학적 해석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1960년대 록 스타의 패션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도상학적 분석을 통해 그 안에 내재된 가치를 해석함으로써 그 시대의 패션의 본질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고찰

1. 록스타의 일반적 고찰

1) 사회현상으로서의 스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드가 모렘(Edgar Morin)은

그의 저서 '스타론'에서 스타와 사회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영화배우를 중심으로 스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했다. 그는 스타란 '영화 주인공의 영웅적인 행동, 즉 신격화되고 신화적인 내용의 일부분을 빨아들이면서 반대로 자기에게 고유한 것을 덧붙여서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는 배우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그 외에도 스타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스타란 추종자(팬)가 있고,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며, 랭킹화 된 인물로, 상업적인 잠재력을 갖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들 수 있다.

스타의 의미가 상업성과 결합되면서 스타가 대중에게 미치는 힘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스타가 마케팅 도구로서 위력을 발휘함에 따라 스타는 비즈니스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고 나아가 스타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타는 사회현실을 반영(reflection)한다.

1960년대의 스타와 1980년대, 1990년대의 스타의 모습이 제각기 다른 것은 곧 그들이 발 딛고 서있던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스타란 당시 사회의 지배구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스타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파악하는 관점 중에서 스타의 소비를 일종의 집단적 무의식(the collective unconscious)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있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집단으로서 그들이 이루지 못한 것 혹은 현실에서 찾지 못한 것을 스타를 통해 추구하고, 그로써 일정한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회적 무의식이 스타를 갈구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스타는 꿈의 양식이며 모방의 효소"라고 정의한 모랭 (E. Morin)의 견해가 바로 그 예이다. 즉, 대중들이 스타를 일상생활안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생활 속에서 스타를 모방(mimesis)하고 감정을 순화(catharsis)한다는 것이다. 집단적 무의식으로서의 스타소비는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믿을만한 사회적 영웅이 없거나 사회적 지도자가 희화화될 때 우리는 스타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거나 사회적 지도자에

대한 분풀이를 하게 된다.¹⁾

기존의 문화는 사회에 대한 저항의 정신으로서 존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 문화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대량으로 소비되는 사회에서는 문화 속에서 그러한 저항정신을 찾기란 손쉬운 일이 아니다. 대중문화 속의 인물들(스타)도 이제는 기성사회에 대한 저항으로서 그 존재의의를 갖기 보다는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유지시키는 존재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중문화, 대중스타는 사회의 현상유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²⁾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중스타의 모습은 '문화산업(culture industry)'의 도구로써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조작된 형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록의 어원 및 사회적 의의

록을 단순히 음악의 한 장르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실제로 록은 특별한 정신적 지향, 예컨대 저항정신 등을 표출하고자 했던 음악적 행동양식을 지칭하는 보다 넓은 문화적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록의 탄생배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하게 된 재즈가 있다. 재즈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게 변형된 것이 로큰롤인데, 이 음악은 심플한 블루스 코드로 빠르고 경쾌하게, 몸의 흔들림과 함께 연주되었기에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다. 초기 로큰롤(rock 'n' roll)이 차츰 'R&R'의 약자로 표시되다가, 더 축소된 록(rock)으로 고정되었다. 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60년대 초인데, 이무렵 록뮤직은 초기 로큰롤에 비해 표현양식이나 내용면에서 예술적으로 보다 세련된 양상을 띠었다.³⁾

'록'이라는 개념에는 무해하거나 시시하다고 여겨지는 대량유통의 음악을 거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것은 보통 가치 없는 '팝(pop)'으로 무시당하는 음악으로, 바로 록의 정반대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광의적인 록의 개념은, 지난 40년 동안 '록'의 의미가 변해온 방식과 공동체에서 그 의미가 이해된 방식에 의해 한층 더 복잡해진다. 20세기

후반의 중대한 아이러니 중 하나는, 록이라는 것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실상 어디서나 구입 가능한 대량 시장의 표준화된 산물(CD, 카세트, LP)을 구매하는 것을 수반하지만, 이런 구매가 자유, 반항, 주변, 저항, 유일무이함, 진정성의 강렬함을 이끌어 낸다는 점이다. 이런 곤란함이 바로 록을 규정하는 바인데, 매스미디어에서의 '대량(mass)'과 '예술(art)'의 관계를 교섭하는 것이 1960년대 이후 록 문화의 독특한 이데올로기 기획이었기 때문이다. 록은 엘리트문화나 토착문화로부터 대량문화를 구별하는 옛날식 문제라기보다 대량문화 내에서 구별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록의 가치판단은 고도로 계층화 된 대중음악의 개념을 만들어냈고, 여기서는 사소한 구별이 생사와 관련된 의의를 갖는 것처럼 비추어 지기도 한다. 대중음악을 진지하게 여기는 것, 그저 유희의 도구가 아닌 '그 이상'의 무엇으로 보는 것은 처음부터 록 문화의 결정적인 특징이었다.⁴⁾

3) 1960년대의 록 스타의 일반적 고찰

1960년대의 록 음악은 자기 자신과 주변세계에 대한 보다 진지한 인식,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회의,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 등을 드러낸다. 포크록의 영향으로 정치, 사회 등 전반에 걸친 문제에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록 정신이 단지 여가선용이 아닌 진지한 삶 전체의 가치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록의 반항정신을 자신의 생활 전반에까지 투영하려는 이상주의는 1960년대 대중음악사에 허무적이고 비현실적 색채를 띠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⁵⁾

1960년대 초, 비틀즈(Beatles)의 등장으로 영국은 세계대중음악계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들은 음악적인 측면에서 화성과 전조, 신선한 사운드, 녹음 기술 등을 크게 진전시켰으나 그 반면 록음악에 섹스, 마약, 신비주의 등이 결합되게 하였다. 그리고 비틀즈의 노래에 나타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시사성, 밥 딜런(Bob Dylan), 존 바에즈, 도어즈(Doors)의 노래에 나타난 저항의식 등을 축으

로 하여 사회구조개선, 인권개선 등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서슴없는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1965년경 LSD(환각제의 일종)를 복용하였을 때의 황홀상태를 가리키는 사이키델릭이라는 용어는 그와 같은 상태를 표현하는 음악으로도 표현되었는데, 제니스 조플린과 도어즈를 주축으로 한 이 움직임은 히피문화의 움직임과 연관되었다. 사이키델릭을 구사하는 가수들은 조명, 테이프 재생, 성적인 묘사를 하는 프리크댄스(Freak dance)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청중들을 환각상태로 몰아넣고자 하였다. 이것은 급속하게 확산된 마약문화와 히피들의 반문화적인 삶의 형태가 음악에 반영된 것이다.

2. 도상해석학의 이론고찰

1) 도상학, 도상해석학의 개념

도상학이나 도상해석학은 다 같이 조형미술 작품을 역사적 시각으로 보고 당시의 문화적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때 사람들의 눈에는 작품의 내용이 어떤 의미로 비쳤을 것인지 또는 어떤 의미에서 작품이 표현되었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이다. 이러한 공통의 관심사를 갖지만 특히 주제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서술적 학문을 '도상학'이라고 하고, 미술 작품에 표현된 상징이나 교리 그리고 신비적 의미와 숨겨진 그 무엇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도상해석학'이라고 구분한다.⁶⁾

'도상학(Ikonographie)'이란 단어는 그리스어인 아이코노 그라피아에서 유래되었다. 도상학은 현대어로 미술작품의 내용적 서술과 해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상학의 역사는 관념사에 속한다.⁷⁾

도상(圖像)은 가장 일반적인 용법에서 말하자면 단지 이미지, 형상 혹은 닮은꼴이다. 이 정의에는 비슷함(resemblance)이라는 개념이 묶여 있다. 도상은 그것이 표시하는 것과 비슷한 기호이며, 종종 그것이 표시하는 물체와 동일시된다. 예를 들면 모양 같은, 어떤 특징일수도 있다. 도상의 비근한 예는 기독교의 십자가이다.

도상학이 학문의 한 갈래로 등장해서 독자적인 연구영역을 점유한 것은 19세기의 일이다. 구상적

으로 재현된 그림이나 조각 작품을 두고 그 주제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가능한 한 다양한 해당 문헌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서, 신화, 문학작품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역사서적도 들추어 보아야 한다. 문헌에 수록된 내용서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문헌적 연관관계는 작품의 모티브로 숙성된 다음에야 비로소 작품의 주제로 형상화되기 때문이다.⁸⁾ 이처럼 도상학적 연구는 매체간의 우회경로를 통한 간접적인 확인 작업이다. 그것은 작품 속에 구현된 이념을 그 내용과 기원, 더 나아가 전개과정 차원에서 분석하여 그림이 함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⁹⁾ 그러나 작품을 분석적으로 다루거나 해석하는 작업은 도상학적 연구에선 하지 못한다. 문헌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내용을 예술작품이 어떻게 조형화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예술이라는 고유한 매체적 가능성의 능력으로 시각화시키는지, 그리고 다른 어떤 매체에 의해서도 교체될 수 없는 주제의 의미가 예술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따위의 문제를 다루기에 도상학은 역부족이다.

우리가 흔히 '시각 형상적인', '심미적인'이라는 형용어로 수식하는 조형미술 작품의 의미에 관한 연구 이외에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 작품의 '문화사적 의미'가 이에 속한다.

문화사적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를 분석하려면 다른 형태의 연구체계가 필요하다. 개별 작품이나 작품군에서 재현된 시각적 표현의 기능성에서 출발해서 포괄적인 문화사적 해석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 인류학, 종교학, 사회제도의 역사, 민족성, 경제사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기술의 역사 등에서 연구의 관심이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으로 엮어서 작품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¹⁰⁾

이와 같은 작품의 해석방식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거론되었지만 바르부르크(A. Warburg)에 의해 영향력 있는 기초가 성립되었다. 그는 이전까지의 종교미술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학문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에게 있어서 도상해석학은 문화학(文化學)의 한

연구분야로서, 조형적 탄생과 전통을 문화사적으로 규명하는 학문의 의미를 가졌다. 그의 미술 연구는 다른 여러 가지 연구와 결부되었고,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작품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영역이 개척되었다.¹¹⁾

2)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의 도상해석학의 내용

도상해석학적 방법의 이론적 기초의 씨앗은 바르부르크에 의해 뿌려졌지만, 이를 학문의 토양 위에 경작하여 명실공히 학문이론으로서의 결실을 가꾸어 내는 일은 거의 20년이 경과한 후 에르빈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의 몫으로 주어졌다. 파노프스키가 제시한 해석(Schema)틀은 조형예술작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미들을 명료하게 구분하여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길을 만들어 주었고, 미술사학의 분야에서는 하나의 확고한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는 도상해석학 이론을 세 개의 층위로 나누어 의미단계의 구분을 성립시켰다.

(1) '일차적인 또는 자연스러운 모티브(Primäres oder natürliches Sujet)'

첫 단계는 다시 사실의미와 표현의미로 나뉜다. 일차적인 모티브를 파악하려면 순수한 형태들이 과연 어떤 대상을 그려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선, 여러 선과 색, 면이 만들어 내는 형태를 뜯어 본 다음, 목적하는 모티프의 형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출발점이다. 그 다음, 이 형태들이 서로 어울려서 표현하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예컨대, 작품에 표현된 인체의 어떤 움직임이 고통스러운 느낌을 준다든지, 어떤 실내 공간이 아찔하고 평화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든지 등을 감지하는 일이다. 이런 예술적 모티브를 나열하는 미술작품의 서술에서 전(前) 도상학적 단계에 해당한다.

(2) '이차적인 또는 관습적인 주제(Sekundäres oder konventionelles Sujet)'

예술적 모티브들과 이런 모티브들이 결합하여

<표 1>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 이론

해석 대상	해석 행위	해석 도구	보완책(전통, 역사)
1. 일차적인 또는 자연스러운 주제 (A) 사실의미 (B) 표현의미 예술적 모티브를 다루는 세계	형태분석	일상경험 (대상이나 사건들을 익숙하게 알 수 있을 것)	양식사 (서로 다른 역사적 조건 가운데 대상이나 사건들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었는가의 과정을 무시)
2. 이차적인 또는 관습적인 주제나 그림, 일화, 알레고리가 이루는 세계	도상학적 분석	문헌기록에 나타난 해석 (특정 테마나 관념을 잘 익힐 것)	유형사 (서로 다른 역사적 조건 가운데 특정한 주제나 구성기법들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들을 매개로 해서 표현되는가의 과정을 무시)
3. 본래의 의미, 의미내용 상징가치로 이루어지는 세계	도상해석학적 해석	종합적관 (인간 정신의 본질적 경향을 잘 파악할 것) 해석자 개인의 심리나 세계관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문화적 정후의 역사 또는 보편적 의미의 상징 (서로 다른 역사적 조건 가운데 인간 정신의 본질적 경향이 어떤 특정한 주제나 구성기법들을 매개로 표현되는가의 과정 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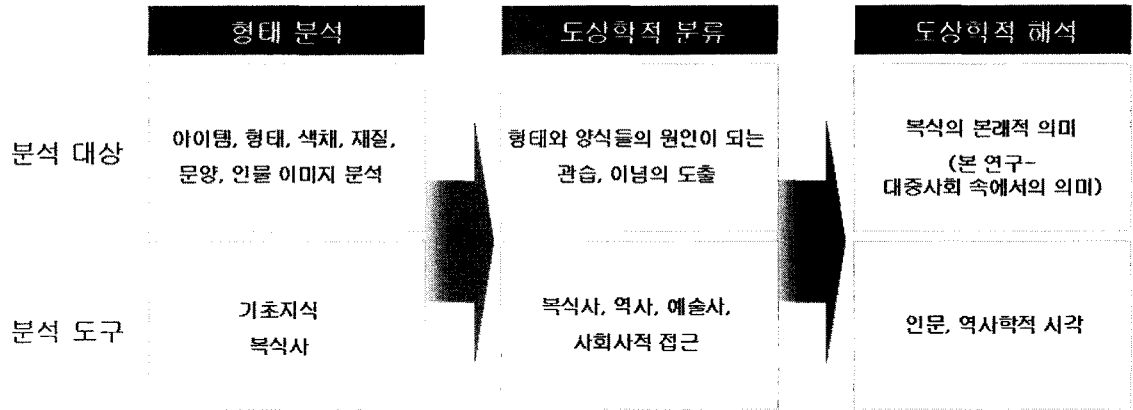
만들어내는 구성들(Kompositionen)을 한쪽에 두고, 또 작품에 주제성(Thema)이나 구성의도(Concetto)를 다른 한쪽에 두어서 양자를 서로 연결하면 이차적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이차적인 또는 관습적인 의미가 실리는 대상을 모티프라고 한다면, 모티프는 곧 그림이나 이미지(Bilder, Images)의 단위가 된다. 그림이나 이미지 단위들을 맞추어 짜는 구성 능력은 미술사자들이 일찍이 창안(Invenzioni)이라고 불려오던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옮기자면, 일화(Anekdote)나 우의(Allegorie)라고 한다. 이러한 그림들이나 일화, 알레고리를 파헤치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통상 도상학(Ikonographie)이라고 부르는 학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3) '본래적인 의미 또는 숨은 내용(Eigentliche Bedeutung oder Gehalt)'

작품의 본래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면 작품의 발생환경을 이루는 한 국가, 시대, 계급, 종교적 교리와 철학적 확신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와 이런 요소들이 한 개인에게 행사하는 영향력, 그리고 어떤

주제가 작품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나는 다양한 관점 뒤에 숨은 기본 원칙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들은 '구성 방법들(Kompositionsmethoden)'을 통해 또는 '도상의 의미(Ikonographische Bedeutung)'를 통해서 투영되거나 드러난다. 여기서 작품의 본래적 의미나 숨은 내용을 남김없이 드러내기 위해 언급할 부분은 작품제작의 기술적인 과정이다. 어떤 지역, 어떤 시대, 또는 작가가 유달리 선호하는 기술적 과정의 문제는 한 양식의 특징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앞서 말했던 순수한 형태, 모티브, 그림, 일화, 알레고리들을 모두 그 배후에 도사린 어떤 숨은 원칙을 드러내는 요소들로 파악한다면, 이 요소들은 에른스트 카시러가 이른바 '상징가치(Symbolische Werte)'라 불렀던 것과 일치한다. 여기서 작품을 표현 대상으로 삼는 '어떤 다른 것'은 셀 수 없이 다양한 표현 수단들을 가진다. 또한, 앞서 언급한 구성과 도상의 틀은 작품의 주제 바깥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을 증언하면서, 해석에 기여한다. 여기서 '상징가치들(이 가치들은 작품을 진행하는 작가 자신이 의식하지

〈표 2〉 복식 분석을 위한 도상해석학적 체계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작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드러내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우리가 도상해석학(Ikonologie)이라고 부르는 학문의 갈래인데, 앞서 설명한 도상학(Ikonographie)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¹²⁾

Ⅲ. 1960년대 록 스타의 패션 분석

1. 비틀즈의 패션 분석

1) 형태분석

비틀즈는 단순하고 몸에 붙는 셔츠와 역시 카라가 없거나 최소화된 몸에 붙는 테일러드 수트를 착용하였다. 좁은 타이, 신사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그 형태는 매우 단순 명료하여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원형의 실루엣을 이루었다. 의상과 소품의 색상은 명도대비가 강한 무채색, 블루컬러가 지배적이었으며 불투명하고 광택이 적으며 치밀한 조직의 개버딘, 평직 소재를 사용하였다. 문양은 없거나 세로방향의 스트라이프로 연출되었으며 4명의 백인 남성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2) 도상학적 분석

(1) 남성성의 축소

형태분석 단계에서 비틀즈의 패션은 단순하고

몸에 붙는 셔츠, 카라가 없거나 최소화된 몸에 붙는 테일러드 수트, 좁은 타이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이것은 50년대 후반 영국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모즈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산물인 남성의 수트는 권위적이며, 강건한 남성성을 표현하고 있고, 근대미의 표상이 됨으로써 절대적인 가치를 발휘하여 왔다. 이러한 사고는 남성 패션에서 권위성, 강건성, 근대성이라는 미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남성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수트의 내부선은 전체적 구조와 통합을 이루기 장식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완전한 형태임을 표명하였다.¹³⁾ 또한 비틀즈의 패션에서 주되게 나타나는 무채색계는 산업화에 의한 매연의 색감, 그리고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새로운 건축과 도로 등을 반영한 색감으로 당시 문화의 대표로 보이고자 했던 남성의 우월의식을 표방한 남성 수트와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여유분이 적고 인체의 구체적인 근육의 형태감을 감추는 뾰뚱한 소재로 재단된 모즈룩은 근대남성수트에서 가슴과 어깨를 강조하여 가부장적 남성미를 표현했던 것에서 물러나 인체를 과장하지 않고 다소 중성화된 형태감을 보인다.

(2) 영국 대중문화의 반영 (문화적 제국주의)

모즈(Mods)란 모던(Moderns)의 약자로 영국을 중심으로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인기

있는 젊은 문화를 지칭하던 말로서, '현대인, 사상이나 취미가 새로운 사람, 스타일에 있어서 기존의 영국 전통에 대항하여 젊은 노동자층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새롭고 소비적인 취향을 가진 집단'을 지칭한다. 이들은 스쿠터를 타고, 말쑥한 테일러드 옷을 입고, 재즈 음악을 듣는 젊은 문화를 형성하였다.¹⁴⁾

베비스 힐리어(Bevis Hillier)¹⁵⁾는 1960년대를 미국문화에 대항한 영국문화의 침공시기로 표현한다. 앤디 워홀은 1960년대의 회고록에서 1963년 여름을 '영국 침공이 있기 전의 마지막 여름'이라고 저술하였다. 최신희 차림의 이 영국풍 모드족의 유행에 대하여 'Sunday Times'지는 "미국의 스타일은 끝났으며, 모드족은 패션리더가 되기 위해 버는 돈의 반 정도를 의복비로 쓴다."라는 기사를 쓸 정도였다고 한다. 이는 마드라스 체크무늬의 면재킷의 스타일에서 진품이며 고가인 악세사리와 수트 시대로의 스타일 변화를 말하는 것이었다.

비틀즈의 매니저였던 브레인 엡스테인(Brain Epstein)은 이미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비틀즈의 소박하고 불량기 있는 이미지의 패션을 당시 영국의 고급스러운 최신 유행패션으로 대입하여 그들을 하위문화에 인접한 대중은 물론 중산층과 상류층에게도 어필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영국을 벗어난 세계시장 안에서 고급화된 영국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표방한 형태로 나타났다.

(3) 미니멀리즘 가치관의 도입

형태분석 단계에서 나타난 기하학적 형태감의 실루엣, 절제된 장식과 색조의 사용은 당시 미국에서부터 전개된 모더니즘 운동의 장르인 미니멀리즘적 양식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모즈룩의 태동이 기존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 모더니스트로서의 지향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니멀리즘 운동은 그 시기적인 면에서도 모즈룩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된다. 각각의 아이템의 형태 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의 외모가 동일한 기하학적 모티브로 형성되고 그것의 반복을 통해 부분을 배제하고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도록 하는 배열방식 역시 미니멀리즘의 반(反)관계주의적 'all

over'형식과 동일하다. 미니멀리스트들은 특정한 부분의 강조나 절정이 없이 같은 단위의 규칙적인 반복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기본 단위가 질서를 위한 원리로서 작용되어 관계적인 구성의 필요가 없어지고 이와 동시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결정과 임의적인 기분에 따른 재배치 같은 것을 배제한다.¹⁶⁾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물체들이 배열되는 논리는 사전에 계획되고 기분이나 감각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 엄격함이 있다. 이는 시각예술에서 과거의 환영적 재현을 배제한 작품의 구성방식으로, 전체에 의해서만 예술은 탄생된다는 고대의 예술론에서 벗어나 누구나도 지적 행위를 통해서라면 예술적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상대적으로 대중지향적 성격이 부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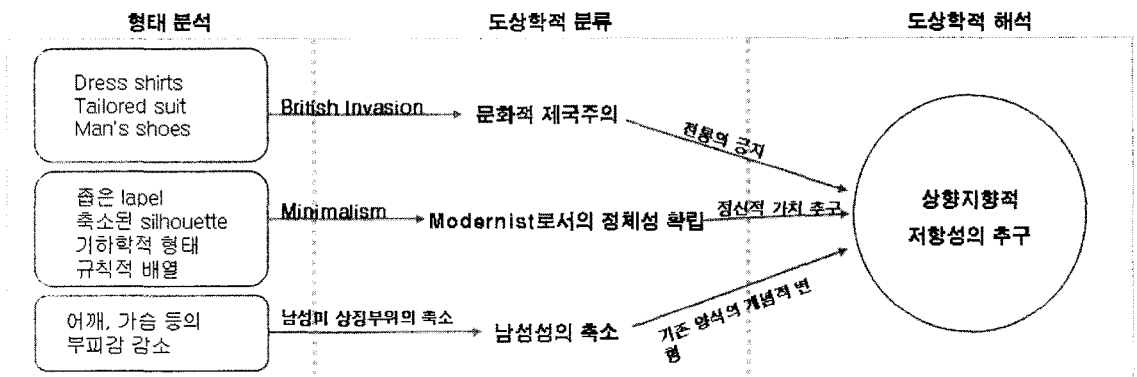
미니멀 아트와 사각형 물체들은 외부는 물론 내부의 수직/수평 그리드 체계의 구조적 법칙에 따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체를 이와 유사하게 구조화된 환경에 좀 더 확고하게 정착시킨다.¹⁷⁾ 그의 특징은 내각이 모두 직각인 것과 등변에 서로 교차해 있다는 것이다. 물체의 느낌을 침착, 무게, 확정적인 한계로 표현한다. 또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는 현저한 긴장감을 부여한다.¹⁸⁾ 이러한 조형성의 비틀즈의 비주얼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화면 전체에 반복되는 인물들의 모습은 어느 한 개인이 특정히 부각되기 보다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은 개성의 해석보다 조형적인 리듬 효과를 강조한 단체성을 부각시킨다.

뒤상으로부터 시작되어 미니멀리즘에까지 영향을 준, 예술적 대상으로서의 레디메이드의 도입은 수공예적인 기술의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유를 통한 온전히 기능적인 물체에 심미적 가치를 두었는데, 이것은 복식 내, 외부의 디테일과 장식의 절제로 대량생산에 용이하게 구성되었으며 그 단순미로 전통적인 수트의 스타일에 저항했다는 모즈룩의 형성배경과도 유사한 내용을 보인다.

3) 도상학적 해석-상향지향적 저항성의 추구

비틀즈의 패션은 성적이거나 감정적인 성격이 철저히 배제된 엄격함과 긴장감이 돋보이는 형태와

<표 3> 비틀즈의 패션 분석



색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육체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공격과 물의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다수의 대중스타와 반대되는 도상을 보인다.

피스크(Jhon Fiske)는 대중문화의 특징을 불법적 쾌락과 이에 따른 반항적 의미를 생산하는 가능성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대중들이 이러한 대중문화로부터 이끌어 내는 쾌락 중 사회적 정체성과 관계를 중심으로 하며 헤게모니적 힘에 대한 기호적 저항을 통해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쾌락의 유형은 비틀즈의 패션에 나타난 저항의 기호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비틀즈의 모즈룩은 과거 가부장적인 남성 수트의 양식을 받아들였으나 중성적으로 변형되었고 그 형태가 질적으로 저하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단순화를 통해 감각적인 양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트의 형태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과 패션을 위한 소비성향이 매우 강했다는 점에서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차이점이라 지칭되는 실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고급

화된 가치의 표현이라는 부분을 수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더니즘이라는 미술사가 이전까지의 사상적, 사회과학적 업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발전된 개념을 창조해 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이는 사유의 기호로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니멀리즘 작품들이 비감정적인 엄격함을 띤다는 점에서도 그 조형성을 이용한 모즈룩은 일반적인 대중예술의 통속성을 떠나 이념적이고 상징적인 가치가 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틀즈가 영국의 최신유행이라 불린 모즈룩을 채택한 것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았으나 대중문화로 유럽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문화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모즈룩 자체가 전통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이 영국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또 미국의 캐주얼룩에 비해 전통적 성향을 띤다는 점에서 일종의 제국주의적 이념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영국적 이미지는 당시 통속적 성향을 띠고

있던 미국의 대중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 있고, 고급화된 것으로 보여졌다.

이와 같은 미적 태도들은 창조적인 대중이 대중 문화의 산물들을 완성된 대상으로 수동적으로 소비하고 그를 통해 지배적인(이데올로기적인) 의미를 암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쾌락을 창출하기 위해 문화적 자원을 능동적으로 응용하여 활용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텍스트의 전반적인 틀과 지배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저항적, 대안적인 해독과 문화실천을 하였다.

이렇게 상향지향적 취향은 기존의 고급화된 도식들을 받아들이되, 부분적 수정을 통해 그들 자신만의 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대중의 저항성을 표출하였다.

3. 존 바에즈, 밥 딜런의 패션 분석

1) 형태분석

존 바에즈와 밥 딜런의 패션 아이템은 여유분이 넉넉한 셔츠와 주름장식의 블라우스, 웨스턴 재킷, 조끼, 넉넉한 데님과 면 팬츠, 월남치마, 에스닉한 모자, 카우보이 모자, 머플러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각 넉넉한 여유분과 주름에 의해 가변되는 실루엣으로 연출되었다. 다채로운 밝은 색조와 열은 타색이 적용되었으며 코트, 울, 코듀로이 등 불투명하고 광택이 적으며 느슨한 조직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문양은 꽃무늬, 기하학 무늬가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사용되었고, 이에 프린지, 애플리케 등의 장식을 사용하였다. 두 대상 모두 화장기 없는 얼굴에 손질되지 않은 듯한 긴 머리와 곱슬머리의 헤어스타일을 보였다.

2) 도상학적 분석

(1) 반문명

형태분석단계에서 나타난 민속적인 아이템이나 천연소재의 사용, 내추럴한 외모, 꽃문양 등은 1960년대 소비사회, 기계사회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차 세계 대전 후 전쟁에 대한 후유증으로 '국가의 지침에 따르는 바른 생활'

을 강조하는 헤겔사상에 반대하여, 삶의 중심을 국가나 사회가 아닌 자신에게 두자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의 실존주의 사상이 그것인데, 그는 인간이 사물과 달리 특정한 용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고유한 본질이 없고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를 책임지며 본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행동에 대한 일체의 제약과 전통을 거부하며 생성되었다. 또한 관료주의적인 기성세대와 풍요로운 사회문화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비판자들이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젊은 시인들과 작가들로 구성되어 '비트세대(Beat generation)'로 불렸다.

그들은 허무와 가식의 가면을 쓰고 있는 관습적인 사회에 실증과 역겨움을 느끼고 그러한 사회의 부패하고 상업적인 모든 규범과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소신의식과 축복의식을 동시에 갖는 세대로 정의된다.¹⁹⁾

Beat라는 용어는 미국작가 '잭 케루악(Jack Kerouac)'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고, 비트세대란 2차대전 이후 냉전에 대한 환멸, 신비주의의 열망, 그리고 사회적, 성적 억압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했던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 용어의 직접적인 의도는 나중에 케루악에 의해 씌어진 'beatitude'와 연관을 지어볼 때, 아마도 '상상력이 풍부한 또는 현실과 동떨어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²⁰⁾

이러한 비트족은 히피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사상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마약을 이용한 은둔적 생활방식이나 신비주의를 통한 내부로의 여행은 실제로 히피들의 중심적 사상이 되었다. 히피족은 비트족의 저항적 메시지를 반영하여 기성세대의 전유물인 깔끔하고 다림질이 잘된 수트와 반대되는 복식문화를 형성하였고, 이것은 구김살이 있는 전원풍의 디자인, 환영적 효과를 주는 장신구와 문양의 사용 등 반-패션(anti-fashion), 반-사회주의(anti-establishment)의 외형을 보였다.

(2) 다문화

비트족은 모든 유패임에 대한 거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망과 실체를 추구하는 상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방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무정부주의적 시가의 결과로 즉흥적, 성, 창조성 등의 보헤미안적 가치가 그들의 생활양식에 응용되었다.

캐루액은 그의 소설 '길 위에서(on the road, 1957)'에서 정처 없고 구습타파적인 생활양식을 묘사하면서 보헤미안적 삶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경험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들은 이전의 많은 보헤미안처럼 자진해서 가족적 우대나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 성공과 같은 가치들과 절연하고, 기꺼이 빈곤으로 뛰어 들었으며, 실존주의자들답게 현재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집단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인 해결책을 추구했다.²¹⁾

이러한 보헤미안적 삶에 대한 열망은 그들의 패션에 이국적인 장신구와 문양, 그 밖의 아이템의 도입으로 나타났으며, 옷 전체에 표현된 주름과 편안한 실루엣은 실제 과거 보헤미안들의 패션의 주된 특성이었다.

(3) 민중적 사회의식의 반영

그러나 존 바에즈와 밥 딜런의 패션은 히피스타일의 일부를 수용하되, 액세서리와 강렬한 문양이 절제되어 상대적으로 간소한 모양새를 보이는데, 이는 그들이 비트의 실존적 이념을 받아들여, 신비주의의 탐구보다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민중운동적 예술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구겨진 리바이스 청바지나 웨스턴 스타일의 패션, 농부의 작업복 스타일은 미국 서부의 광부들과 개척시대, 그리고 노동계급의 상징물로서 그들의 패션에 도입되었다.

비트와 마찬가지로 포키즈(Forkies)들도 1950년대에 북유럽과 북아메리카에 급격하게 대두되었던 '소비주의 사회(consumer society)'에 반사적으로 저항하는 문화형태로서, 이들은 산업화 이전의 전원생활, 인간정신에 대한 신뢰, 인간의 영혼을 찬양하는 낙천적인 사고를 중시하였다.²²⁾

비트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도시의 중심부나 근교에 살았지만 그들의 정서는 시골에 대한 향수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전원생활의 순박함에 대한 그리움은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에 많은 도시지역의 주민에게 유행했던 웨스턴 카우보이 영화에 의해 그를 모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카우보이들은 전원생활의 가난함을 애써 감추려 하였고, 그러한 가난함으로부터 떠나려고 했지만 포키즈는 이를 낭만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가난을 그들과는 매우 다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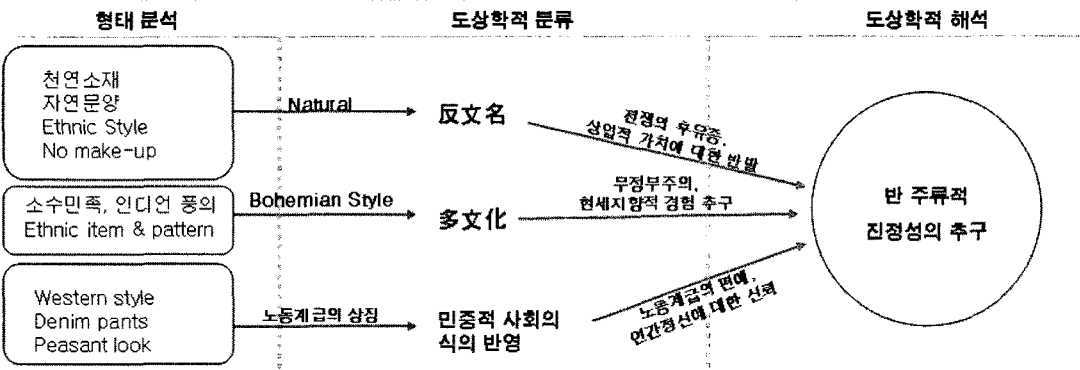
포키즈는 비트의 실존주의적 철학을 받아들였지만, 허무주의적인 요소는 결코 수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포키즈의 낙천주의적인 요소는 오히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대항정신으로 발산되었다. 비트가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들에 대하여 절망적으로 생각했던 반면에, 포키즈는 그러한 조건들로 사회를 위한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낙천적인 저항정신은 진팬츠와 웨스턴룩을 밝은 색조와 자연주의적 장식과 소재, 밀짚모자 등 페전트풍과 매치한 형태로 그들의 패션에 반영되었다.

3) 도상학적 해석-반(反)주류적 진정성의 추구

모던 포크송으로 규정되는 존 바에즈와 밥 딜런의 음악은 대중문화에 대해 차별화되고 진지한 태도를 취하는 청년들을 이러한 태도가 없는 대중과 구별하는 하나의 수단을 제공했다. 록 팬과 음악가, 비평가들은 소외와 비진정성(과도한 상업화, 진실하지 못함, 조작, 창조성의 결여를 포함)의 징후에 경계하며 대중음악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한다. '진정한'이라는 말은 상업과 유행, 모방, 영감의 결핍 등으로 인해 타락하지 않은, 직접적이고 정직한 것으로 보이는 미적 경험을 뜻한다.²⁴⁾

실존주의에 의거한 비트족의 전쟁과 상업적 가치체계에 대한 반발은 진정성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비트족과 히피족의 문화는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급진적이며 다소 소외적이었다. 대체적으로 소외는 진정성의 탐탁치 못한 대립항이다. 물론 대중예술사에 매우 소외적이고 급진적인 작품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은 주로 매개의 관점으로, 다시 말해 예술가와 대중의 이상적인 소통

〈표 4〉 존 바예즈, 밥 딜런의 패션 분석



을 위한 관점으로 이해된다.

대중문화는 진보적이지만 혁명적인 것은 아니다. 지배구조를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급진적 예술형식들은 결코 대중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련성을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가 주장하듯이, 급진적 예술은 부르주아적이며 대중의 취향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급진적 예술은 현 상태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 그 자체의 존재조건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 급진성 가운데 일부는 여과를 거쳐 대중의 진보성과 진정성을 증진시킨다.²⁵⁾

이와 같은 여과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대중적 저항주의는 국가와 자본의 억압에 대항하기 위해서 밑으로부터 스스로 조직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들의 일상적인 지배를 억압으로 느끼면서 지배문화의 포섭과 합병전략에 공모 또는 동의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²⁶⁾

1950~60년대 비트와 히피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실존주의는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를 배제한 형태로 민중적 사회의식을 표방한 포키즈(forkies)에 반영되었는데, 그들의 패션은 지나친 장식과 부피감의 절제로 대중화에 적합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급진의 여과작용을 통한 대중문화의 형성으로, 대중문화 역시 정치적 의지가 반 될 수 있다는 진정성의 추구에 의거한 것이다.

이런 진정성, 자율성, 작가정신의 개념들은 18, 19세기의 보완적이면서 구별되는 두 역사적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로 낭만주의와 모더니즘이 그것인데, 양자 모두 대량사회 비판의 결정적 출처로서, 록 문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낭만주의와 모더니즘은 산업, 도시 자본주의의 출현에 도전했고, 예술가, 음악가를 진정한 개인의 자아를 특권적으로 대표하는 이들이라고 찬양했다. 19세기 중반 낭만주의에서 발전되어 나온 모더니즘은 예술가가 사회의 양심이라는 낭만주의 개념을 확장하는 한편, 예술가의 정치적 역할을 보다 더 공공연하게

논쟁에 부쳤다.²⁷⁾

이와 같은 활동들은 20세기 대중예술이 예술가로 하여금 어느 정도 진정성을 형상화하고 표현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3. 제니스 조플린, 지미 핸드릭스의 패션 분석

1) 형태분석

제니스 조플린과 지미핸드릭스의 패션아이템은 조끼, 플라운스 장식의 블라우스, 넉넉한 여유분의 셔츠, 망토, 빈티지 풍의 군복, 자수와 아플리케가 놓여진 벨보텀 팬츠, 에스닉한 모자, 에스닉한 목걸이와 팔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패션의 실루엣과 형태는 길고 넓은 형, 여유분과 러플에 의해 가변되고 과장되는 형을 보였다. 또 채도가 높은 색조, 보색이나 반대색의 다채로운 색조의 사용을 보였으며 PVC, 인조모피, 합성직물, 레이스, 천연직물, 빛나는 소재를 사용하였다. 문양은 꽃무늬, 에스닉 무늬, 기하학 무늬등이 사용되었으며 이에 플라운스, 프린지, 아플리케, 비딩, 자수, 블레이드 장식을 적용하였다. 각 인물의 외모는 화장기 없는 얼굴, 부피감이 강조된 헤어스타일을 보였다.

2) 도상학적 분석

(1) 복수성

형태분석단계에서 알 수 있듯이 에스닉 스타일과 빈티지 밀리터리 룩, 캐주얼 등의 스타일 절충과 소재상의 합성직물과 인조가죽, 천연직물과 광택소재의 혼용은 공간적, 시간적 혼용의 상징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과거 엘리트문화로 상징되는 이성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니체와 프로이트의 영향 하에 이분법을 해체시켜 주는 포스트모던이라는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에 따르면 포스트모던은 모더니즘에 대한 불신과 실망 그리고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그 태도는 합리적인 사고와 형식을 강조하던 모던에 대한 공격이자 본질로 돌아가자는 모습을 띠었다. 그의 이러한 논리는 합리적 이성주의로 정리되지 않던 포스트모던

의 입장과 모습을 합리화시키고 이론화시킨 것이며, 모던에 대한 허무주의 관점과 감정주의 또는 단순저항에서 벗어난 혼란을 이론화시켰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자유경제시장체제에 돌입하면서 경제의 교류는 문화의 교류로 이어졌으며, 각기 다른 문화들이 더욱 복잡하게 뒤섞이게 되었다. 특히, 데리다는 고대의 로고스적 철학의 한계를 규정하며 해체와 재조합에 의한 의식과 문화의 실천을 주장했다. 확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성적인 이유와 의미는 결국 타자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영원한 확정을 주장하는 부정적인 횡포에 불과하며, 의미의 본질적 관념을 역행하는 것이라 비난하였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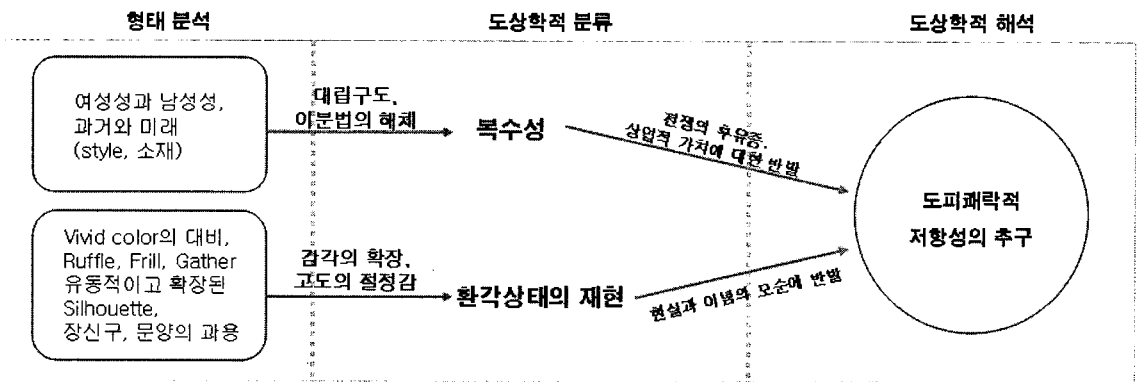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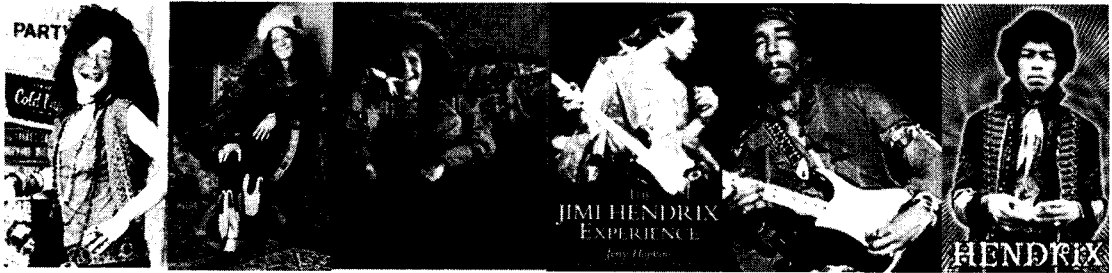
데리다의 철학관과 같이, 제니스 조플린과 밥 딜런의 사이키델릭 음악은 록, 재즈, 블루스, 전자음악, 인디언 음악과 클래식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다. 또 레이스와 플라운스, 주얼리 등 여성의 전유물로 상징되던 아이템을 남성의 패션에 도입한 것, 근대 청년 저항문화의 상징으로 입혀졌던 데님팬츠에 빈티지 밀리터리룩이라는 과거 권위의 전유물을 레이어링 한 것, 그리고 인공소재와 천연소재의 혼용 등은 이분법적이고 수직적인 논리에 대한 해체와 재조합이라는 이념 하에 표현된 양식이었다.

(2) 감각의 확장

비비드한 색조의 대비, 과장된 실루엣과 겹겹이 레이어링 된 악세서리, 번쩍이는 소재의 사용은 모더니스트들의 '적을수록 좋다'는 미학과는 정반대였다. 사이키델릭은 환각을 일으키는 LSD마약에 영감을 받아 환영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취향을 보였다. 이러한 황홀한 상태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현란한 조명과 그에 맞는 과장된 의상이 필요했고, 이것은 이국적이며 퇴폐적이고 관능적이며, 미래적이면서도 세기말적 데카당스를 반영한 형태로 나타났다.

인간내면의 꿈과 상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이키델릭은 일종의 자아도취로 볼 수 있는 환각상태를 표현하였다. 이것은 환각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환영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유도해 내기 위하여 시

<표 5> 제니스 조플린, 지미 헨드릭스의 패션 분석



각과 청각의 공감각적 의식의 확대를 추구하였고, 보통의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 사고의 초월과 오감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였다.²⁹⁾

3) 도상학적 해석 - 패락적 저항성의 추구

사이키델릭은 이성적 합리주의에 대한 대립으로 무의식이나 환영적 상태에 대한 동경을 그들의 문화에 대입하였고 이것은 성, 문화, 과거 관습에 대한 가치를 전복시켰다. 모더니즘의 금욕적 미학에 도전한 이들은 감각의 확장을 위해 더욱 과장되고 일상적이지 않은 자극적인 형과 색조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극에 대한 욕구는 지배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양성성, 동성애의 등장을 야기했다.

이것은 대중이 주어진 제도와 이념, 지배계층이 위에서 부과하는 규율과 이데올로기 등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전도시킴으로써 그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의미와 쾌락을 이끌어 내는 저항적이고 창조적인 실천과정이다.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 역시 대중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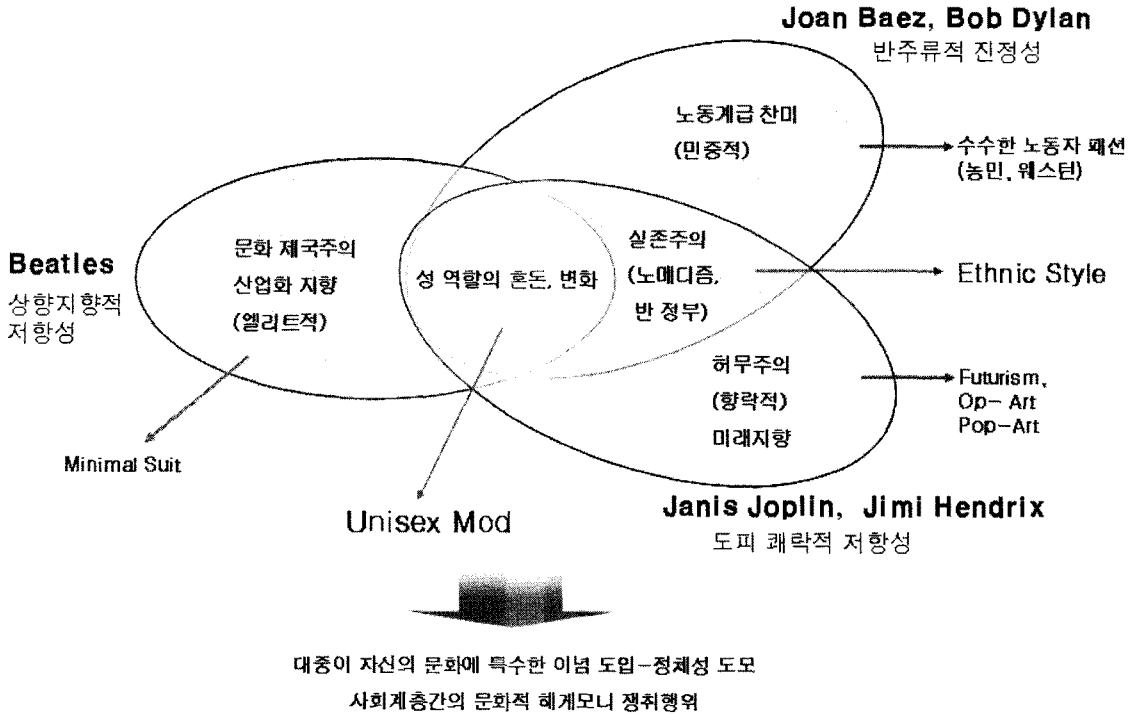
를 대중들에게 해방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해 준다. 바르트(Roland Barthes)는 대중문화의 수용자들은 대중문화 텍스트들로부터 육체적인 쾌락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적인 통제로부터의 해방을 맛보는 적극적인 문화실천을 행한다고 역설한다.

제니스 조플린과 지미 헨드릭스는 이렇게 억압된 기존의 권력체계에서 벗어나 현실을 자신들의 기호로 치장하고자, 미래적이고 물질화 된 사회를 확장된 개념의 인간성의 추구라는 욕망과 절충하여 도입하였다.

IV. 결론

록 문화는 본래 대량유통문화에 대한 거부로 형성되었다. 때문에 자유, 반항, 주변, 저항, 유일무이함, 진정성의 도입으로 자신들의 독자적인 가치를 형성하였는데,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도로 계층화 된 대중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므

<표 6> 60년대 록스타 패션의 해석



로 록 스타의 패션을 분석한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유희적인 대중문화가 아닌, 능동적이고 이념화 된 대중문화를 돌아보는 것이 된다.

1960년대 록스타의 패션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모즈는 과거의 이미지를 차용하되, 엘리트적 모더니즘을 도입하여 매우 도회적인 양식을 보였다. 포키와 사이키델릭은 산업사회에 반발해 후기 구조주의적 성향을 보였는데, 포키의 경우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동자 계급을 상징한 양식들을 도입하였다. 또한 전쟁에 대한 후유증과 상업적 가치에 대한 반발로 자연회귀적 패전트 록을 병행하여 전체적으로 목가적인 분위기를 보였다. 사이키델릭은 다소 현실도피적인 저항성을 표출하였는데, 무의식에 대한 탐구와 환각적 상태에 대한 찬미로 환영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 냈다.

포키와 사이키델릭은 실존주의의 도입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에스닉한 요소

들의 사용으로 공통되었다. 그러나 포키는 민중적 성향에 의해 수수한 모습을 보인 반면 사이키델릭은 환락 문화의 표현으로 옹아트, 팝아트, 퓨처리즘 등 화려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성 역할의 변화에 따른 유니섹스 모드의 도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각각의 스타 혹은 공동체는 자신들의 문화에 특수한 이념을 표방하고 그것을 음악과 복식을 포함한 행위로 반영되었다. 이것은 첫째로, 대중이 자신의 문화에 특수한 이념을 도입함으로써 정체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 둘째로 사회계층간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저항정신의 행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화에 완전히 대립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과거의 것을 수정하고 재생산해 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앞서서도 서술하였듯이 록이 예술과 대중의 관계를 교섭하고자 한 전략적인 요인과 대중문화는 급진적이기 보다는 여과과정을 거쳐 진

정성을 띤 문화를 창출해 낸다는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처음엔 소수였던 다양한 이념의 스타일들이 스타라는 매개를 통해 대중에게 수용되고 전파되어 하나의 큰 양식으로 자리 잡은 예로 볼 때, 대중스타와 그의 패션은 가치추구적 대중성을 선도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의 한계점은 형식에 대한 각각의 비교분석이 내용적 분석에 비해 미비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도상해석학의 생내적 결함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여 더욱 체계화 된 방법론과 그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원용진 (1993). 스타, 스타론, 스타 읽기. 서울: 言論文化研究, p. 264.
- 2) H. 마르쿠제, 박병진 역 (1988). 일차원적 인간. 서울: 한마음사, p. 42.
- 3) 金素英 (2003). 록음악의 역사와 음악적 성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6.
- 4) 사이먼 프리스, 윌 스트로, 존 스트리트 엮음, 장호연 옮김 (2005). 케임브리지 대중음악의 이해. 서울: 한겨레, p. 195.
- 5) 金素英 (2003). 앞의 책, p. 14.
- 6) 조용진 (1997). 서양화 읽는 법. 서울: 사계절, p. 47.
- 7) 얀 비알로 스토키(Jan Bialostoki). 에케하르트 캐밀링 편집. (1997).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서울: 사계절, p. 17.
- 8) 위의 책, p. 5.
- 9) 칸 쿤스틀레(Kan Künstle). 에케하르트 캐밀링 편집 (1997). 도상학과 도상해석. 서울: 사계절, p. 71.
- 10) 위의 책, p. 8
- 11) 신미순 (2002).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에 대한 도상해석학적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 12) 에르빈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 (1997).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서울: 사계절, pp. 139-146.
- 13) Moers E. (1960). *The Dandy Brummell to Beer-bohem*. London: Secker & Waburg, p. 62.
- 야민선 (2003). 권력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복식문화학회, p. 183에서 재인용.
- 14) 이연희 외 (2002). 패션문화. 서울: 예학사, p. 94.
- 15) Bevis Hillier (1993). 20세기 양식. 서울: 수학사, p. 210.
- 16) Nikos Stangos, 성완경, 김안례역 (1996). 현대미술의 개념. 서울: 문예출판사, p. 367.
- 17) 루돌프 아른하임, 정용도 역 (1995). 중심의 힘. 서울: 눈빛, p. 179.
- 18) 김용훈 (1987). 색채 상품 개발론. 서울: 청우, p. 22.
- 19) 김성곤 (1990). 비트세대와 성난 젊은이들. 서울: 문학정신, p. 58.
- 20) 윤수경 (2003). 저항적 하위문화로서의 히피와 그 전후 스타일의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6.
- 21) 서유리 (1994). American Hippie와 그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6.
- 22)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저 (1999). 복식 문화. 서울: 교문사, p. 286.
- 23) Ted Polhemus (1994). *Street Style*. Thames and Hudson, p. 40. 윤수경 논문에서 재 인용
- 24) 사이먼 프리스, 윌 스트로, 존 스트리트 엮음, 장호연 옮김 (2005). 위의 책, pp. 225-226.
- 25) John Fiske (2002). 대중문화의 이해. 박만준 역, 서울: 경문사, p. 235.
- 26) 이성철 (1990). 노동자계급과 문화적 실천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산업사회학회, p. 161.
- 27) 사이먼 프리스, 윌 스트로, 존 스트리트 엮음, 위의 책, p. 230.
- 28) 코디 최 (2006). 20세기 문화 지형도. 서울: 안그라픽스, p. 132.
- 29) 정해순 (1992). 팝뮤직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8.